

『英和字彙』의 異本과 版種에 대한 서지적 조사

A report on a variety of versions and editions of 'Eiwajii'

이자호*

Key Words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Meiji Period, An equivalent, Bibliography

1. 에도(江戸) 시대 말기·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의 영일사전

에도(江戸)시대 말기까지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와의 교역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의 출판에서도 『和蘭字彙』(1855-1858)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어 계통의 사전이 출판된다. 한편, 일본 내에서 영국과 미국은 네덜란드에 이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일본어와 네덜란드어의 대역사전 이외에, 일어와 영어의 대역사전도 『諳危利亞語林大成』(本木正榮等編, 1814)와 『英和對譯袖珍辭書』(堀達之助本等編, 1862)가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은 영일사전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어 계통의 사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종래의 네덜란드어 계통의 영향을 탈피한 영미계통의 영일사전인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시간강사

『附音挿圖英和字彙』(日就社)가 柴田昌吉・子安峻에 의해 출판되는 것은 1873년이다. 이 사전은, 불과 9년 뒤인 1882년 재판인 『増補訂正英和字彙』가 출판된다. 이 두 사전은 당시의 사전으로서는 어휘수가 많고 메이지(明治)시대 말기까지 이 사전의 영향을 받은 영일사전이 많이 출판되는 점 등에서 중시된다.

飛田良文・宮田和子(1997)는 메이지시대의 영중사전(英華辭典)을 대상으로 그 소장처, 출판상황 등에 관해 자세히 조사한 바있다. 이 조사는 일본내에 소장되어 있는 영중사전의 종류와 특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근대 일본어의 연구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어떤 영중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메이지시대의 영일사전에 대해서는, 豊田實(1939), 永嶋大典(1995)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영일사전의 시대적 성립과정과 체제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두 연구에 의해, 전체적인 영일사전 성립 과정의 변천에 대해 알 수는 있지만, 각 사전의 특성-특히, 소장처, 異本이나 版種 등의 출판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메이지시대의 영일사전에 대한 소장처와 출판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로 『附音挿圖英和字彙』와 그 재판인 『増補訂正英和字彙』의 異本과 版種에 대해 조사한 바를 보고한다. 이 두 사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이전의 네덜란드어 계통 사전의 영향을 탈피한 영미계통의 대표적인 사전이며 메이지시대 전반에 걸쳐 이 사전의 영향을 받은 영일사전이 많이 출판된 점 등에서 중요시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하여 금후 異本과 版種의 영향 관계를 밝혀가고자 한다.

2. 『附音插圖英和字彙』와 『増補訂正英和字彙』에 대해

2.1 『附音插圖英和字彙』의 출판 경위

『附音插圖英和字彙』(1873, 이하 초판으로 약칭)의 저자인 柴田昌吉(1841-1901)는 長崎에서 태어나 한학과 네덜란드어를 배웠는데 1858년, 長崎에 英語傳習所가 개설되자 이곳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우게 된다. 1863년, 에도 양학소(洋學所)의 교수를 거쳐, 1864년에는 英語小通詞가 된다. 1867년에는 横浜裁判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같은해 神奈川裁判所の 翻譯官이 된다. 한편 공동저자인 子安峻(1836-1898)는 大垣 출신으로 大阪의 村田藏六 문하에서 수학한 후, 佐久間象山에게 砲術을 배운다. 1874년에는 賣讀新聞을 창간한다. 두 사람의 저자가 알게 되는 것은 柴田昌吉가 横浜裁判所에서 근무할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永嶋大典(1996) 참조).

초판의 「緒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전략) 然レドモ之ヲ刷印スルニ許多ノ苦心ヲナセリ曾横浜ノ商糸屋平八此事ヲ聞抵当ノ有無ヲ問ズ首トシテ金若干ヲ出シ以テ我輩ノ創業ヲ助ク因テ刷印ノ器械ヲ外國ヨリ購シ譯成ルニ隨テ之ヲ刷印シ遂ニ今春ニ至リテ成功ヲ得タリ (후략) (원문은 縦書)

위의 내용에 의해, 柴田昌吉와 子安峻은 상인 平八에게 자금을 빌어 横浜에 日就社를 설립하고 외국에서 인쇄기계를 구입하여 초판을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2.2 초판의 書名과 原本

초판인 『附音插圖英和字彙』는 洋紙(가로 18cm, 세로 24cm)에 각 페이지를 2단으로 구성하여 원어와 역어를 게재하고 있다. 원어는 횡서로 되어 있는 반면 역어는 원어와 90도 각도로 게재되어 있다. 총 1556페이지 가운데 본문에 해당하는 A部부터 Z部는 1387페이지이고 그 뒤에는 부록이 실려 있다.

초판에 「附音插圖」라고 쓰여 있는데 「附音」이라고 붙인 것은 원어인 영어의 발음을 웨스터식 발음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插圖」는 「緒言」에 「語數大約五万五千ニシテ名物ノ圖五百有餘アリ」라고 쓰여 있듯이 서양의 문물이나 동식물 등의 그림(또는 설명도 포함)이 실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英和字彙」는 오늘날의 영일사전을 가리키는데 「字彙」란 중국의 『字彙』(1615)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에도시대에는 사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附音插圖英和字彙』란 원어(영어)에 대한 발음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외국의 사물이나 동식물 등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림을 삽입하여 사전 이용자의 이해를 도운 영일사전을 뜻하는 것이다.

「緒言」을 보면 「英國法律博士阿日耳維氏ノ字書ヲ原本トシテ」(원문은 縦書)라고 서술되어 있다. 阿日耳維란 JOHN OGILVIE (1797-1867)를 가리키는 것으로, 早川勇(1997)는 그 원본이 『The Student's English Dictionary』(1865)라고 주장하고 있다.

2.3 『増補訂正英和字彙』에 대해

『増補訂正英和字彙』(이하 재판으로 약칭)는 초판의 출판 9년 뒤

인 1882년에 출판된다. 각 페이지를 2단 구성으로 해서 원어와 역어를 게재하고 있는데, 초판에서 원어와 역어를 90도 각도로 게재했던 것과는 달리, 재판에서는 원어와 마찬가지로 역어를 횡서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초판의 한자표기의 대부분에 실려 있던 후리가나(振り仮名)가 재판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으며 그 위치도 한자의 아래 부분으로 바뀌어 실고 있다.

「緒言」에,

(전략) 原語ノ音讀ヲ訂シ舊版ノ譯語ヲ正シ譯字ノ繁冗ヲ省キ且ツ
横植ノ譯字ヲ正植ニ變シ・・・増補スルニ凡ソ一萬餘言挿圖一百餘
箇ヲ以テセリ (후략) (원문은 縦書)

라고 쓰여있다. 이 「緒言」에 의해, 10000여 단어와 100여개의 그림이 증보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이자호 2006년), 원어의 수는 6909어, 그 원어에 대한 역어의 수는 22876어(延語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판에는, 일상어 외에 생물학, 의학, 화학, 지리학 용어 등 전문용어도 상당수 증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는 일본고유어를 한어(자음어)로(예를 들면, 延ルコト(초판, extension,n.) → 延長(재판, extension,n.)), 동식물명을 고유명사로(예를 들면, 穀物の名(초판, wild-oat,n.) → 烏麥(재판, wild-oat,n.)) 바꾸는 등 역어가 정정된 부분도 적지 않다. 초판과 재판 사이에 보이는 역어의 증보 및 정정에 대해서는 이자호(2005a,b)에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3.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에 대해

3.1 『附音挿圖英和字彙』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에는 두 권의 초판이 소장되어 있다. 한 권은 西垣文庫로 분류되어 있는 것(청구번호: 문고10-04178)이고, 다른 한 권은 西村四郎의 기증에 의한 것으로 메이지기 문헌으로 분류(청구번호: 호06-01973)되어 있어 마이크로필름 열람(청구기호: M1-07432)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문고10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문고본, 호06에 분류되어 있는 것을 마이크로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문고본과 마이크로본은 모두 가로 18.5cm, 세로 26cm로 되어 있는데, 문고본이 표지를 새 것으로 한 데 대해 마이크로본은 연두색의 가죽 표지(출판 당시의 표지인 것으로 보인다)로 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본에는 「ENGLISH & JAPANESE DICTIONARY」 「NEW ILLUSTRATED EDITION ABOVE 500 ENGRAVINGS」라고 쓰여 있다. 특히, 마이크로본의 앞표지 뒷부분에는 백지가 붙어 있는데 그 곳에는 西村四郎이라는 인물이 손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此英和辭典は姫路舊藩主酒井忠邦公の處用ありしもの也公は明治初年米國に遊學華胄界の先覺者とす辭典は明治六年の出版其時代唯一の英和辭典とす而も其價の高きものとて普通の學生には容易に需め得ざりしものなりし余の家酒井家から得て既に藏するや久し蓋し永くこれを記念となさんと欲す昭和八年八月誌之西村四郎 (원문은 縦書)

이 기록에 의해, 姫路의 藩主였던 酒井忠邦가 사용했던 사전을

西村四郎이라는 인물이 소유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본에는 백지 3장째 겉면에 昭和 15년(1940년) 2월 14일, 西村四郎의 유족에 의해 기증되었음을 표시한 도장이 찍혀 있다.

문고본과 마이크로본은, 본문인 A부에 들어가기 전에 「緒言」 「音用之解」 「編中所用之略語」가 실려 있다. 본문인 A부부터 Z부까지는 1378페이지이다. 원어와 역어의 게재 방법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Z부가 끝나면 1페이지를 띄우고 부록이 실려 있다.

마이크로본의 부록은 1388페이지부터 1548페이지에 걸쳐 있다. 이 부록에는 「不規則動詞表」 「略語解」 「象形記號之解」 「略語之解」 「附音近代地名集」 「圖解」가 실려 있다. 「圖解」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東京 小林東馬 刀」라고 쓰여 있다.

마이크로본에는 낙장이 없는데 반해, 문고본에는 「略語解」의 K부 K.H.에서부터 「象形記號之解」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pp.1409-1432). 또한 「圖解」도 1544페이지까지 있고 1545페이지부터 1548페이지가 없다.

문고본과 마이크로본은, 낙장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사전의 체재상 상이점이 보이지 않아 두 사전은 같은 판본인 것으로 생각된다.

3.2 『增補訂正英和字彙』

재판인 『增補訂正英和字彙』(1882)는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에 2권 소장되어 있다. 한 권(청구번호: 호6-2030)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른 한 권(청구번호: 호6-2733)은 표지가 새 것으로 제본되어 있다. 전자를 마이크로본, 후자를 신장정본으로 부르기로 한다.

마이크로본에는 「SECOND ILLUSTRATED EDITION ABOVE

600 ENGRAVINGS 第二版」라고 쓰여 있어 版數와 600개의 그림이 사용된 것(초판은 500개)을 알 수 있다.

A부에 들어가기 앞부분에 영어로 서명이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 마이크로본에는 메이지 36년(1903년) 大隈信常가 기증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다. 한편, 신장정본에는 같은 페이지에 東京專門學校圖書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두 권 모두 발행처 등의 내용이 일치하여 같은 판본이라 생각된다.

서명에 이어서는 「緒言」 「音用之解」 「編中所用之略語」가 실려 있고 A부에서 Z부까지는 총 1192페이지로 되어 있다. 재판은 초판의 역어를 상당수 증보 및 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부에서 Z부까지의 페이지수가 초판(1387페이지)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원어에 대해 2개 이상의 역어를 게재할 때 초판에서는 원어의 아래 부분에는 역어를 게재하지 않은데 반해, 재판에서는 원어의 아래 부분까지 역어를 게재하여 페이지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부록에는 「不規則動詞表」 「略語解」 「度量衡略表」 「象形記號之解」 「略語之解」 「附音近代地名集」가 실려 있다. 「度量衡略表」는 초판에는 없는 것으로 재판에 증보되었다.

4.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판의 異本

일본 국회도서관에는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같은 판본으로 보이는 초판과 재판이 각각 한 권씩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 초판의 異本이 다름과 같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異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서명	출판사 / 발행자	페이지수	간행년도
『附音插圖英和字彙』	与論社	680	1885
『附音插圖英和字彙』	文學社	1107	1885
『附音插圖英和字彙』	共立活版部	1548	1886
『附音插圖英和字彙』	積善館	1548	1886
『附音插圖英和字彙』	佐藤乙三郎	680	1887
『附音插圖英和字彙』	岡上尚儀	1548	1889

与論社の 것에는 저자가 「子安峻・柴田昌吉」가 아닌 「小安峻・柴田昌吉」로 되어 있지만 동일 인물들로 보이며 底本도 다름 아닌 『附音插圖英和字彙』(日就社, 1873)이다.

与論社の 사전은 각 페이지를 3단으로 구성한 寫眞石版의 사전이다. 佐藤乙三郎가 발행한 사전도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전이 총 680페이지로 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3단 구성으로 페이지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文學社の 사전은 『附音插圖英和字彙』라는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저본에서 보이는 그림(插圖)이 없다. 그림이 없어서 底本(총 1548페이지)보다 페이지수가 적다.

共立活版部の 사전은, 저본인 日就社の 사전과 출판사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積善社の 사전은 「織田純一郎 校正」이라고 쓰여 있는데 日就社の 것을 어떻게 교정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85년부터 1886년 사이에 新古堂書店에서 『附音插圖英和字彙』를 4권으로 나누어 간행한 것도 있는데 국회도서관에는 제 4권(1886년)밖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 일본국회도서관에는 오사카(大阪)의 同盟書店에서 1887년에 출판한 『附音插圖英和字彙』가 있다. 단, 이 사전에는 文學士 天野爲之 訂正, 鈴木重陽 増補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中村順三郎이 출판한 『附音插圖増補英和字彙』(1888)가 있는데 이 사전은 栗野忠

雄 増補라고 쓰여 있다. 日就社의 『附音插圖英和字彙』를 底本으로 하여 위의 두 사전은 출판된 듯이 보인다. 단 다른 사전들과 달리 위의 두 사전은 증보나 정정자의 이름을 명확히 하고 있어 日就社의 사전의 異本으로 보기에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사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두 사전의 증보 및 정정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먼저 그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메이지시대 『附音插圖英和字彙』의 異本이 출판된 것은 『附音插圖英和字彙』가 高價로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휘수가 많고 종래의 네덜란드어 계통의 사전과는 달리 새롭게 부상하는 영미계통의 사전인 『附音插圖英和字彙』는 메이지시대에 많은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3단구성이나 그림을 삭제하는 등의 편집방법으로 사전의 가격을 낮추어 위와 같은 異本들을 출판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5.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附音插圖英和字彙』와 그 재판인 『増補訂正英和字彙』에 대한 체계적인 서지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보고하였다.

특히 『附音插圖英和字彙』의 경우, 메이지시대의 영일사전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인지 日就社의 『附音插圖英和字彙』의 異本이 數種 출판되었는데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英和字彙』(초판과 재판)는 메이지시대의 주요 영일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대학 도서관과 몇 명의 개인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서지적 조사를 위해서는 그 소재 파악이 시급하다.

앞으로 소재 파악과 함께 『英和字彙』의 異本과 版種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추진한다면 메이지시대 영일사전의 발달 과정은 물론 메이지시대의 역어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자호(2005a), “『増補訂正英和字彙』に増補された譯語” 『國文學研究』第145集, 早稻田大學國文學會, pp.9-20.
- 이자호(2005b), “『増補訂正英和字彙』における譯語の訂正” 『國語學研究と資料』第28号, 國語學研究と資料の會, pp. 1-12
- 이자호(2006), “近代英和辭書の譯語に關する研究”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博士論文
- 大阪女子大學付屬図書館編集(1962) 『大阪女子大學藏日本英學資料解題』
- 竹村覺(1933), 『日本英學發達史』, 研究社
- 豊田實(1939), 『日本英學史の研究』, 岩波書店 (인용은 4刷 1995)
- 永嶋大典(1996), 『新版蘭和・英和辭書發達史』, ゆまに書房(初版1970)
- 飛田良文・宮田和子(1997), “十九世紀の英華・華英辭典目錄一翻譯語研究の資料として” 『國語論究 6 近代語の研究』, 明治書院
- 早川勇(1997), 『初期英和辭典の編纂法』, 中部日本教育文化會

<Abstract>

"*Fuonsôzu Eiwaji*" was first published in 1873 by *Shibata masakichi* and *Koyasu Takashi*. And, 9 years later, its second edition, "*Zôhôteise Eiwaji*", followed in 1882. These two editions of dictionary are acknowledged as the most authentic work in the Meiji period. This is just because several other editions, as well as their publishing circumstances, have been still hidden in a veil of mystery though they were undoubtedly published in different versions over the whole period of Meiji. This paper, which is groundwork for more systematic bibliographical exploration about the two editions of dictionary, is a report on my research on two versions of collections, the central library's collection at Waseda University and the Japanese Diet Library's collection.

It seems that the first and the second edition of "Eiwaji", two volumes of which are in the central library's keeping at Waseda University, are of the same print, though they are witnessed with some pages missing and their binding condition is in a different shape. By contrast, The Japanese Diet Library preserves an assortment of the first edition, "*Fuonsôzu Eiwaji*". These assorted versions were all published and sold with reference to Nishusha publishing company's version of "*Fuonsôzu Eiwaji*". Nevertheless, their editing condition turns out to be different in that they each reduced pages in a unique way by editing 2 columns to 3 columns or dropping illustrations, or such. It seems that this kind of editing at that time was for the general public to access the dictionary, "*Fuonsôzu Eiwaji*", which was very expensive in the Meiji period and available mostly to a limited class of wealthy people. The dictionary was high-priced and yet popular due to its rich amount of vocabulary as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So, the editing seems to reflect the publishing companies' efforts that called for the general public to buy the dictionary, "*Fuonsôzu Eiwaji*" by newly editing it and lowering its price.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central library's collection at Waseda University and the Japanese Diet Library's collection. Hereafter, I will further launch a thorough and systematic bibliographical research on "*Eiwaji*" (first and second edition), the most authentic English-Japanese dictionary in the Meiji period, in addition to a research on a process of change in its Japanese translations.

이름 : 이자호(Ja-ho Lee)

소속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강사

주소 : 서울 성북구 종암2동 SK아파트 106-1717

전화 : 010-9323-7867

메일 : jasdsnm@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07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7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7년 3월 10일